



제목	Turkish Literature and Cultural Memory: "Multiculturalism" as a Literary Theme After 1980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rrassowitz
발행일	2009. 7. 1.
저자	Catharina Dufft(편집자)
출판도시	Wiesbaden
페이지수	257
ISBN 또는 ISSN	978-3447058254

내용 요약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들로 구성된 나라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1908년 쿠데타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민족해방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국가를 표방한 터키 공화국이 등장하였으며, 오스만 제국의 다문화적 유산이 배경 되었다. 이런 문화적 단절은 터키의 집단적 기억의 단절을 갖고 왔으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그 당시 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특히 터키 문학은 수십 년 동안 다문화국가였던 과거의 모습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 상황이 점차 자유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면서 문학에서도 오스만 제국과 터키의 과거를 배경으로 한 «다문화주의»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Giessen 대학의 공동 연구 센터 "기억의 문화"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의 논문들을 엮어서 출간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는 터키 문화의 기억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초기 공화국 시대의 터키화 정책, 터키 문화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매체로서의 문학, 터키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와 독자성 등 이론적 배경과 문학 경향을 다룬 논문들이 배치되어있다. 제2장은 "문학과 영화 주제로서의 다원주의"라는 소재목하에 최근 문학 경향뿐만 아니라 터키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주의적 테마를 살펴보는 논문들을, 제3장에서는 다문화주의의 한 양상인 교차문화에 대해 터키, 독일, 키프러스간의 비교 분석 논문들을 배치하였다.